

# 강진수협장 돈선거 '복마전'

후보 등 4명 구속영장… 돈받은 조합원 33명 입건

전임 조합장이 대출청탁 등 비리로 중도하차한 강진수협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이 살포됐던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강진경찰은 26일 강진수협 조합장 선거에서 당선될 목적으로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후보자 박모(59)씨와 송철·중간책 김모(62)씨 등 4명에 대해 수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조합원 김모(60)씨 등 3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일 강진군 강진읍 모 병원에 찾아가 입원 중이던 조합원 김씨에게 10만원을 제공하는 등 조합원 37명에게 모두 1천150여만원을 건넨 협의를 받고 있다.

중간책 김씨 등 3명은 박씨로부터 금품을 받아 조합원들에게 전달한 협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금품살포 사실이 적발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조합장 후보에 출마한 박씨는 지역별로 '중간책'을 두고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목돈을 전달한 뒤 이를 조합원들에게 수만~수십

만원씩 돌리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박씨가 선관위에 적발될 당시 갖고 있던 조합원 전화번호부에서 이름에 표시가 되있는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벌였으며, 결국 광범위한 매표 행위를 적발했다.

앞서 선관위는 전체 유권자 1천900여명에게 금품 수수 관련 자수 안내장을 발송하고 지난 20일까지 자수하도록 권유했었고, 이를 통해 20여명의 조합원들이 금품 수수 사실을 선관위와 경찰에 자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김윤수 전남대 총장 당선자 논문 중복개재 논란

김 당선자 "수정·보완된 것"

전남대 진위 여부 조사키로

지난 5월 전남대 차기 총장에 당선된 김윤수(58·산림자원조경학부) 교수가 연구 논문을 중복 게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그러나 김 당선자는 전공의 특성상 중복이 아닌 수정·보완의 개념으로 연구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남대는 조만간 진위 여부 조사에着手할 예정이다.

김 당선자는 자신이 공동저자로 참여한 'Effects of reaction pH and hardener type on reactivity properties, and performance of urea-formaldehyde(UF) resin'이라는 제목의 영문 논문을 지난 2002년 국내 저널인 '목재공학'에 실은데 이어, 2003년 공동저자로 참여한 해외 저널 'Polymer Science'에도 비슷한 주제로 논문을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김 당선자가 지난

때문에 이런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지만 국내의 연구 성과를 해외에도 알리자는 '정보 공유'의 차원이었지 연구 실적을 부풀리거나 연구비를 이중으로 수령하기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전남대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총장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교내 세력 다툼 때문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 같은 논란이 김 당선자가 선거 당시 5표 차의 박방의 승리를 거둔 지 1개월 가량이 지난 후 벌어졌기 때문이다.

한편 전남대는 김 당선자가 중복개재에 대한 반박 자료를 제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 진위 여부를 고려해 방침이다.

그는 "생명과학 분야의 특성상 논문을 발표한 후 그 논문에 쓰였던 재료를 가지고 다른 결과와 도출을 위해 비슷한 방법의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며 "반복된 연구를 계속 진행하기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화물연대 광양·여수 협상 타결

화물연대 쟁의 청탁 방침 이후에도 광양지부와 광양시 운송업체 간의 운송료 협상이 최종 타결됐다.

26일 광양시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25일 밤 광양항 마린센터에서 광양항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광양 태인산단, 여수산단 등의 운송을 담당하는 27개 운송업체들과 운송료 평균 31% 인상안에 최종 서명했다. 최종 합의서에는 운송료 21~50% 인상, 화물연대 조합행동보장, 단단계 하청 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거리 운송지역을 중심으로 운



### 지하상가 화재

26일 오전 9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금남로 지하상가 L의류판매점에서 누전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했다. 화재는 10분만에 진화됐으나 의류가 타면서 나는 연기로 인해 지하상가 통행이 금지되는 등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위치광기자 jrw@

### 교대·사범대 교양과목

#### 저작권 분야 포함 추진

전국 교육대학과 일반대학 사범대학생 등 예비교사들에게 저작권 분야를 교양과목으로 이수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26일 국립민속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린

송료 최저 하한선을 정해 운송료를 명시하는 등 표준요율제에 준하는 협의도 포함됐다.

윤무효 광양시 운송업체 협의회장은 "운송료 표준요율제를 160개 도시 구간에 우선적으로 실시하게 됨으로써 차주와 운송사 간의 갈등이 줄어들 것"이라며 "운송료 인상부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대기업과 조합원들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동국 화물연대 전남지부장은 "고통분담을 한다는 차원에서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해준 운송업체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광양=김춘호·안현주기자 chkim@

### 슬금슬금 장맛비

장마전선의 영향을 받아 일부지역은 밤 늦게 비가 내리겠다.

광주	차차 흐려짐	20~28°C
포	흐려져 밤부터 비	19~25°C
여수	차차 흐려짐	19~24°C
완도	흐려져 밤부터 비	18~25°C
구례	차차 흐려짐	18~28°C
해남	흐려져 밤부터 비	18~26°C
장흥	차차 흐려짐	18~26°C
고성	차차 흐려짐	19~26°C
순천	차차 흐려짐	19~27°C
광진	차차 흐려짐	19~28°C
전주	차차 흐려짐	18~28°C
남원	흐려져 밤부터 비	16~22°C

서해남부  
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0.5~1.5m  
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안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2.0m  
만나다=북동~남동풍 파고 1.0~3.0m

목포 물길 07:50 물길 20:40 물길 00:52 물길 13:31 물길 02:34 물길 09:11 물길 15:38 물길 21:36

▲해뜸 05:20 ▲해침 19:51 ▲달뜸 00:14 ▲달침 13:23

◇주간날씨

날짜 28(토) 29(일) 30(월) 31(화) 2(수) 3(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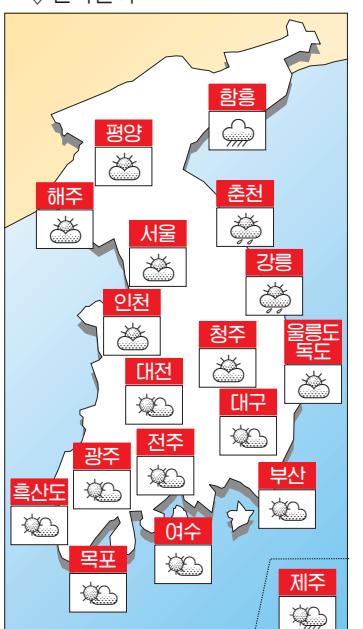
날씨

최저/최고 20/23 21/26 20/28 21/28 21/29 21/27

### 6월 27일

(음 5월 24일)

◇전국날씨



## 교정시설 수용자 인권 미흡 여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광주 소년원, 목포 교도소 등 전국 8개 교정시설에 대해 보건의료, 규율·징벌 등 11개 분야를 방문 조사한 결과 수용자에 대한 인권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개 교정시설 모두 수용점원을 초과해 운영하고 있거나 일부 교도소에서는 화장실에서 쥐가 나오는 등 비위생적인 곳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권위는 소년원 여자원생들의 경우 가족과 원거리에 떨어져 수용생활을 하면서 따른 심리적 고통 등을 고려해 타 지방에 여자소년원을 신설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무관 승진 후보자였던 강경양 광주경찰청 차장은 이날 경무관으로 승진 발령됐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임마선 유아교육과정

**국내영교 육학**  
여름방학 기쁜 문제풀이만 大특강

국내영교시작일 529-0690 개강 7월 4일

## 전공국어

제 7·5회

7월 18일 ~ 22일

7월 25일 ~ 29일

7월 30일 ~ 31일

8월 1일 ~ 5일

"자식들한테 바랄게 뭐 있나?

모두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고마운거지!"

"요즘 효자가 별건가

그저 아무 탈없이 건강하게 살아주면 그게 효자지"

당신의 아침마다 자식들에겐 힘이 되고 건강이 됩니다.

당신의 아침처럼 당신께서도 늘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건강을 낳고, 건강이 행복을 키웁니다.

성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좋은 약을 만들게 합니다.

국제약품은 오늘도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비타민 A, C, E와 보급

교재교과서, 천연수제국, 편집·편집자, 책과 글, 글과 글

교재, 교과서, 책과 글, 책과 글, 책과 글